

# 대륙별 수출액의 상승률과 변동성 및 향후 성장 가능성 분석

## Growth Rate and Volatility of Exports by Continent & Future Growth Potential Analysis

최수호\*, 최정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성결대학교 경영학부\*\*

Soo-Ho Choi(shchoi88@sogang.ac.kr)\*, Jeong-Il Choi(cji3600@hanmail.net)\*\*

###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지난 2010년 이후 우리의 수출 대상인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수출액의 상승률 동향과 변동성 그리고 상관관계와 모형분석 등을 살펴보고 향후 성장 방향을 찾아보는데 있다. 분석 결과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순으로 높은 수출 비중을 보여주었으며 수출액 상승률은 아시아, 북미, 유럽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월대비 변동률은 아시아와 북미가 안정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의 수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아시아, 북미, 유럽으로의 수출 향상에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50%가 넘는 아시아 즉, 중국, 일본, 베트남, 홍콩, 대만, 인도 등으로 수출 향상과 수출전략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아직은 수출 비중이 크지 않지만 향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의 신시장 개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출향상 방안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 중심어 : | 수출액 | 대륙별 | 상승률 | 변동성 | 상관관계 | 모형분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growth trends and volatility of exports in Asia, North America, Europe, Central and South America, Middle East and Africa since 2010. And analyze the correlation and model analysis to find out future directions of develop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showed high export share in Asia, North America, Europe, Central and South America, Middle East and Africa. Asia, North America, Europe showed a relatively high rate of increase in exports and the month-on-month rate of change was stable in Asia and North America. In order to increase our exports through this research, we should pay much attention to export improvement to Asia, North America and Europe. Especially, Asia's exports account for more than 50%, so it seems necessary to plan export enhancement to China, Japan, Vietnam, Hong Kong, Taiwan and India. Although the proportion of exports is not large yet, much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new market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the Middle East and Africa. And I look forward to systematic progress in export promotion.

■ keyword : | Exports | By Continent | Increase Rate | Volatility | Correlation | Model Analysis |

## I. 서론

한국의 무역규모가 지난 2014년 1조982억 달러 이후 2015년 9,633억 달러, 2016년 9,016억 달러를 보이며 잠시 주춤하였으나 2017년도 상반기에는 세계 경기 회복세에 영향을 받아 상승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반도체와 선박,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 수출액이 큰 폭 증가하며 3년 만에 다시 '무역 1조 달러'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의존도를 보면 중국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도 기준으로 수출 비중이 몽골과 북한은 80% 이상, 홍콩은 50% 이상, 한국과 대만은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외 베트남, 태국, 필리핀은 대략 1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2017년도 GDP 성장률은 6%대로 예측되고 2018년도에는 성장률이 더 감소할 것으로 보여 중국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경우도 대중국 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는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sup>1)</sup>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재협상을 시작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환경과 노동규제 강화,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수입관세와 할당량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환율 조작 가능성이 있는 감시 명단에 들어 있다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2].

본 논문의 목적은 지난 2010년 이후 우리의 수출 대상인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수출액의 상승률 동향과 변동성 그리고 상관관계와 모험분석 등을 살펴보고 향후 성장 가능성을 찾아보는데 있다. 우리의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주요 수출지역인 아시아, 북미, 유럽에 대한 관리와 새로운 수출 개척지인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에도 많은 관심과 수출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II. 선행연구

본 선행연구에서는 우리의 수출 대상인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시아와 관련하여 아시아태평양공동체(APC)의 출범이 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3], 한국과 APEC 국가 간 해외직접투자 와 포트폴리오투자의 무역효과에 관해 분석하였고[4], 동북아 물류시장의 새로운 거점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였다[5].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라 아세안 역내무역을 EU, NAFTA, MERCOSUR와 비교하여 분석하고 역내무역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면 역내시장의 확대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6].

유럽과 관련하여 한국과 유럽 간 교역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7], 유럽의 경기침체가 한·EU FTA 체결 이후 대EU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8]. 한국과 EU 간 FTA 발효 전후의 무역결합도와 비교우위의 변동을 분석하여 한국의 대EU 무역 결합도가 감소한 반면 EU의 대한민국 무역 결합도는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제조업 위주로 비교우위를 확보하여 화학물 및 제품, 기계와 운수장비 등의 품목에서 수출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9]. 한-EU FTA 발효 3년의 성과와 향후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의 대EU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감소 원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 악화로 인해 EU 회원국들의 수입 감소가 주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10].

북미와 관련하여 FTA 체결의 효과를 분석하고 북미 통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11], 미국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으며[12],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사업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북미지역의 진출 전략을 제안하였다[13]. 美 대선 결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중국에 이어 한국도 통상압력의 주요 타깃 가능성을 주장하였으며[14], NAFTA 이후 북미 자동차산업의 생산 전환에 대한 분석에서 외국계 기업들의 약진에 대응하여 미국계 기업들에게 훨씬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1) 코리아 랭킹: <http://korearanking.tistory.com/84>

고 분석하였다[15]. 한·캐나다 FTA 발효가 되어 같은 '북미'지만 미국과 다른 소비성향과 규제를 주의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16], 캐나다 통상전략과 FTA 활용법에 대해 '북미'라고 미국처럼 판단하면 될 패라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7].

중남미와 관련하여 중남미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18], 한·중남미지역간의 FTA체결 이후 교역환경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었으며[19], 중남미 경제 환경 분석과 한·콜롬비아 FTA의 시사점을 제안하였다[20]. 중남미 국가들과의 체결을 중심으로 한국 AEO 상호인정협정의 원활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으며[21], 멕시코의 자유무역과 환경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였다[22]. 최기영(2012)은 한·칠레 FTA 체결 전후의 자동차 수출 영향 요인 변화 분석을 통해 중남미 자동차 수출 전망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중남미 자동차 수출에 FTA 효과보다는 현지국의 경제상황이 더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23].

중동과 관련하여 중동 아랍시장 진입시 고려할 법적 사항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고[24], 석유개발 교섭력 결정 단계 및 중동지역 교섭력 강화 방안이 연구되었으며[25], 세계 농산물 무역의 주요 지역으로 부상하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26]. UAE 시장을 중심으로 중동지역 의약품시장 통상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결과 의약품 수출활성화 측면에서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 분석과 UAE 시장에 대한 진출전략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27].

아프리카와 관련하여 인도와 아프리카, 중국 시장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였으며[28],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 현황과 한국의 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와[29], 아프리카 시장에서 우리나라 플랜트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출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30]. 또한 아프리카 ODA·FDI 수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으며[31], 하이트진로가 아프리카에 진출하여 성공한 뜨거운 적도에 수출한 빨간 뚜껑 소주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32].

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유용한 연구 자료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 III. 자료수집 및 지표분석

#### 1. 자료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의 수출금액은 관세청 무역통계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기간은 총 210개월(17년 6개월)로 2000년 1월에서 2017년 6월까지 월간자료를 분석하였다.

편의상 아시아는 ASIA, 북아메리카 NORA, 유럽 EUR, 중남미 CSA, 중동 ME, 아프리카 AFR로 표기하고자 한다. 전 구간의 월간자료는 Excel, e-views, SPSS를 이용하여 상승률과 변동성 등 지표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술통계량, 상관분석, 회귀분석과 Distribution, Scatter, Quantile-Quantile, Box-Plot Analysis 등을 통해 각 대륙별 수출액의 상승률과 변동성 그리고 향후 방향성을 예측하고자 한다[33].

#### 2. 지표분석

[그림 1]은 각 대륙별 수출액 동향으로 ASIA 54.97%, NORA 13.99%, EUR 14.97%, CSA 6.41%, ME 5.63%, AFR 1.96%, Other 2.06%를 보이고 있다. ASIA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홍콩, 대만, 인도 등 한국과 무역거래가 많은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어 54.97%로 높게 나타나 있다. 여기서 Other에는 오세아니아와 대양주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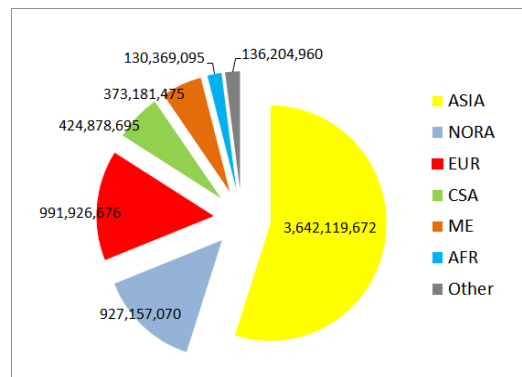


그림 1. 각 대륙별 수출액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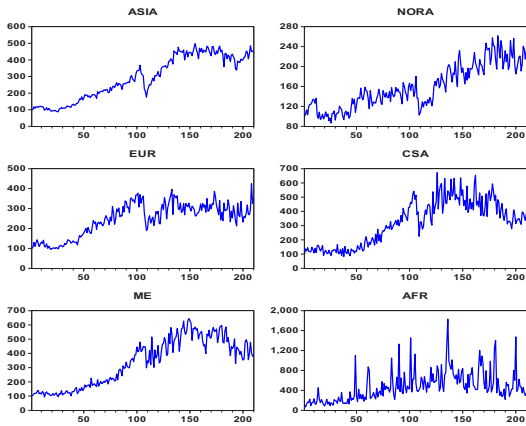


그림 2. Trend of Export Growth Rate

[그림 2]는 각 대륙별 수출액의 지난 2000년 이후 상승률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ASIA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 있으며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CSA와 ME의 상승률이 ASIA에 이어 높게 나타나 있으나 지난 2014년 이후 상승률이 감소하고 있다. EUR의 상승률이 2008년 이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08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NORA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은 낮으나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AFR은 수출비중은 낮지만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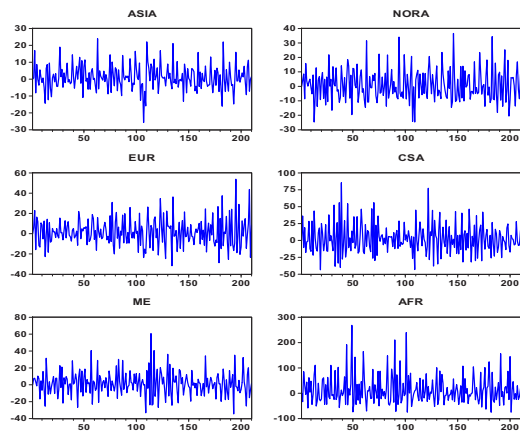


그림 3. MoM Exports Change Rate

[그림 3]은 각 대륙별 전월대비 수출액의 변동률을

보여주고 있다. AFR, CSA, ME, EUR 순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 있으며 상대적으로 ASIA와 NORA는 안정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EUR은 최근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CSA와 ME는 변동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IV. 실증분석

##### 1.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각 대륙별 월간 수출액의 기술통계량이 ASIA, NORA, EUR, CSA, ME, AFR로 분류되어 [표 1]에 나타나 있다. 평균의 경우 ASIA 1.00%, NORA 0.998%, EUR 1.514%, CSA 3.005%, ME 1.659%, AFR 13.643% 이고 표준편차는 ASIA 7.47, NORA 11.09, EUR 13.76, CSA 22.40, ME 14.45, AFR 58.25로 나타나 있다. 이 결과 ASIA, CSA, ME가 상대적으로 상승률 대비 위험이 작은 수출권으로 보이며 AFR은 상승률과 위험이 모두 큰 수출권으로 판단된다.

표 1. Descriptive Statistics

	KOR	ASIA	NORA	EUR	CSA	ME	AFR
Mean	1,001	1,000	0,998	1,514	3,005	1,659	13,64
Median	0,572	0,454	-0,37	0,971	1,606	1,703	-0,03
Maximum	24,91	23,95	36,54	53,75	85,42	60,66	268,2
Minimum	-22,2	-25,6	-24,6	-31,6	-43,5	-34,4	-75,1
Std. Dev.	7,962	7,472	11,09	13,76	22,40	14,45	58,25
Skewness	0,145	0,281	0,506	0,494	0,616	0,446	1,363
Kurtosis	3,267	3,999	3,372	3,718	3,626	4,156	5,542
Jarque-Bera	1,363	11,52	10,18	13,06	16,74	18,66	121,6
Probability	0,505	0,003	0,006	0,001	0,000	0,000	0
N	210	210	210	210	210	210	210

각 대륙별 수출액의 상관분석이 ASIA, NORA, EUR, CSA, ME, AFR로 분류하여 [표 2]에 나타나 있다. KOR은 ASIA 0.879, NORA 0.780, EUR 0.697, ME 0.661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CSA 0.334, AFR 0.219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2. Correlation Analysis

	KOR	ASIA	NORA	EUR	CSA	ME	AFR
KOR	1						
ASIA	0.879	1					
NORA	0.780	0.695	1				
EUR	0.697	0.464	0.520	1			
CSA	0.344	0.181	0.182	0.098	1		
ME	0.661	0.576	0.533	0.337	0.185	1	
AFR	0.219	0.098	-0.001	0.068	-0.030	0.073	1

표 3.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C	-0.4958	0.110046	-4.5059	0
ASIA	0.5231	0.02134	24.5134	0
NORA	0.1251	0.014397	8.6942	0
EUR	0.1758	0.009153	19.2140	0
CSA	0.0609	0.004844	12.5902	0
ME	0.0774	0.009246	8.3792	0
AFR	0.0198	0.001842	10.7693	0
R-squared	0.9641	Mean dependent var		1.0011
Adjusted R-squared	0.9630	S.D. dependent var		7.9626
S.E. of regression	1.5305	Akaike info criterion		3.7218
Sum squared resid	475.542	Schwarz criterion		3.8334
Log likelihood	-383.799	Hannan-Quinn criter.		3.7669
F-statistic	908.967	Durbin-Watson stat		2.5387
Prob(F-statistic)		0		

KOR을 종속변수로 최소제곱법(Least Squares)의 회귀분석이 [표 3]에 나타나 있다. 단순회귀모형에서 최소제곱법은 편차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분포 점수로 평균을 정의하고 있다. Coefficient가 ASIA 0.523, EUR 0.175, NORA 0.125 순으로 KOR과 일정부분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나 CSA, ME, AFR은 KOR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장으로 판단되었다. 수정된 R-squared가 0.963로 산출되어 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 KOR의 변화가 96.3%로 설명력이 매우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Durbin-Watson stat<sup>2)</sup> 값이 2.538로 2에 가까워 각 대륙권이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을 의미하고 있다. ASIA, NORA, EUR, CSA, ME, AFR의

2) Durbin-Watson stat 값이 2에 가까우면 오차항들은 서로 독립이라고 할 수 있으며, 0에 가까우면 양의 자기상관(positive autocorrelation), 4에 가까우면 음의 자기상관(negative autocorrelation)이 있음을 의미한다.

t통계량과 p-value( $\leq 0.005$ )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출되었다.

## 2. 모형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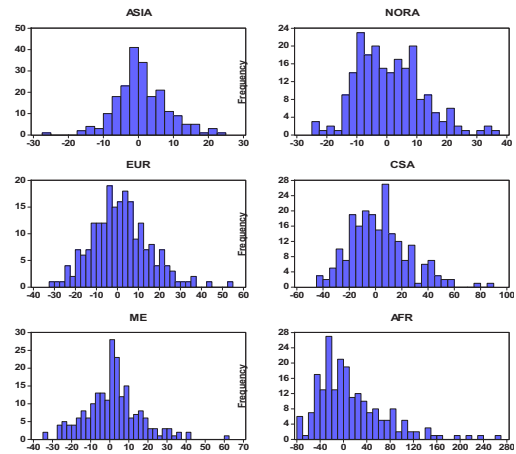


그림 4. Distribution 분포

각 대륙별 수출액의 지난 2000년 이후 월간 상승률 분포도가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그림 4]에서 ASIA는 -10%와 +10% 사이에서, NORA는 -15%와 +15% 사이에서, EUR는 -20%와 +20%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평균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으나 AFR의 경우 -80%와 +80% 사이에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불안한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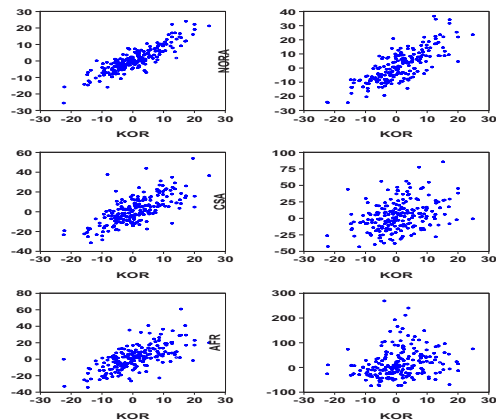


그림 5. Scatter Charts

각 대륙별 수출액의 지난 2000년 이후 월간 Scatter Charts가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X축은 KOR 변동률이고 Y축은 ASIA, NORA, EUR, CSA, ME, AFR의 변동률을 나타내고 있다. KOR과 비교하여 ASIA, NORA, EUR의 분산도가 대체로 일직선을 보이며 우상향하고 있어 동행성이 높아 보이는 반면 CSA, AFR는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둥글게 뭉쳐있어 동행성이 낮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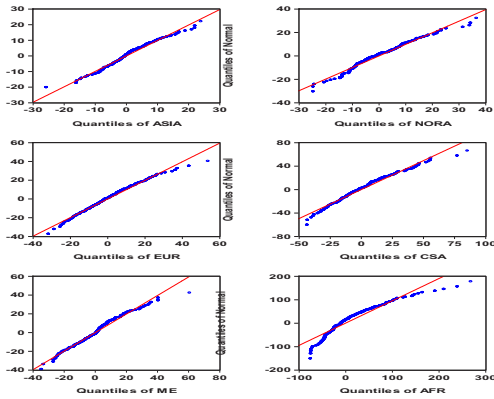


그림 6. Quantile-Quantile Pl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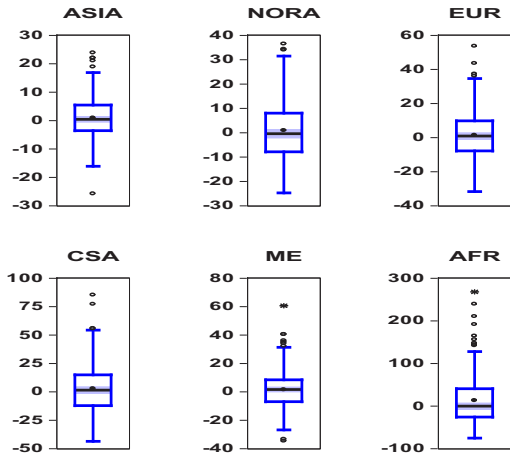


그림 7. Box-Box Plot

각 대륙별 수출액의 월간 Quantile-Quantile Plot가 [그림 6]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는 1:1선(빨강선)을 중심으로 ASIA, NORA, EUR, CSA, ME, AFR의 출력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다. 그림에서 AFR을 제외하고

ASIA, NORA, EUR, CSA, ME의 경우 전체적으로 1:1선에 밀착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각 대륙별 수출액의 월간 Box-Box Plot가 [그림 7]에 나타나 있다. [그림 7]에서 ASIA, NORA, EUR은 상대적으로 몸통이 작아 변동률이 작게 나타났으나 NORA의 경우 상단에 긴 꼬리를 달고 있어 일시적인 상승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CSA, ME, AFR는 상대적으로 몸통과 위·아래 긴 꼬리를 달고 있어 변동률이 크게 나타났으며 더구나 상단에 매우 큰 이상급등현상(\*)이 다수 나타나 있다.

## V. 결론

지난 2010년 이후 우리의 수출 대상인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수출액의 상승률 동향과 변동성 그리고 상관관계와 모형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ASIA, NORA, EUR, CSA, ME, AFR 순으로 높은 수출 비중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ASIA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홍콩, 대만, 인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 54.97%로 높게 나타났다.

대륙별 수출액 상승률은 수출비중이 높은 ASIA와 NORA, EUR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CSA과 ME의 상승세가 2014년 이후 둔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과 새로운 대응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전월대비 변동률을 살펴보면 ASIA와 NORA는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EUR은 최근 변동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일시적이거나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지속적인 수출상품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기술통계량에서 평균은 ASIA 1.00%, NORA 0.998%, EUR 1.514%, CSA 3.005%, ME 1.659%, AFR 13.643%이고 표준편차는 ASIA 7.47, NORA 11.09, EUR 13.76, CSA 22.40, ME 14.45, AFR 58.25로 나타나 ASIA, CSA, ME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승률 대비 위험이 작은 시장으로 판단되었다. 각 대륙별 상관분석에서 KOR은 ASIA, NORA, EUR, ME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우리의 수출액은 이 대륙권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회귀분석에서 Coefficient가 ASIA 0.523, EUR 0.175, NORA 0.125 순으로 나타나 우리의 수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ASIA, EUR, NORA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분포도와 분산도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수출액은 ASIA, NORA, EUR와 높은 동행성을 보이며 움직이고 있고 안정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Q-Q와 Box-Box Plot 분석에서 ASIA, NORA, EUR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아 안정된 시장인 반면 CSA, ME, AFR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한 시장으로 판단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의 수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아시아, 북미, 유럽으로의 수출 향상에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50%가 넘는 아시아 즉, 중국, 일본, 베트남, 홍콩, 대만, 인도 등으로 수출 향상과 수출전략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아직은 수출 비중이 크지 않지만 향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의 신시장 개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출향상 방안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1] 김영민, “6월 수출 514억 달러, 월 기준 역대 2위,” 중앙선데이, 제538호, 제2면, 2017.07.02
- [2] 박영환, “미·중 포괄적 경제 대화 ‘무역 힘겨루기’ 본격화,” 경향신문, 2017.07.18.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 [3] 정찬모, “지역, 지역주의와 아시아태평양공동체,” 법학연구, 제19집, 제1호, pp.1-27, 2016.
- [4] 김석민, 고자흠, “한국과 APEC 국가 간 해외직접 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의 무역효과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9권, 제3호, pp.129-150, 2015.
- [5] 이영민, “동북아물류 신거점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역할,” 전자무역연구, 제13권, 제1호, pp.85-107, 2015.
- [6] 나희량,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아세안 역내무역 분석 및 시사점 : EU, NAFTA, MERCOSUR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연구, 제25권, 제1호, pp.31-84, 2015.
- [7] 정종태, 최창환, “스마트 무역시대의 한국과 유럽 간 교역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제17권, 제4호, pp.319-332, 2016.
- [8] 강유덕, “유럽의 경기침체가 한-EU FTA 이후 대 EU 수출에 미친 영향 :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활용한 요인분석,” 무역연구, 제12권, 제6호, pp.187-206, 2016.
- [9] 이민지, 이재득, “한국과 EU 간 FTA 발효 전후의 무역결합도와 비교우위 변동 분석,” 유럽연구, 제33권, 제2호, pp.281-313, 2015.
- [10] 손수석, “한-EU FTA 발효 3년의 성과와 향후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유럽연구, 제33권, 제2호, pp.191-221, 2015.
- [11] 노재확, “중남미 지역과 FTA 체결의 효과 분석 및 북미 통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 CGE 접근,” 무역연구, 제11권, 제6호, pp.175-192, 2015.
- [12] 김필수, “미국 트럼프 시대,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한 대응전략은?,” Meconomy, 통권99호, pp.1-2, 2016.
- [13] 유재욱 외 3, “2017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 전략 : 북미지역,” KOTRA 16-070, pp.17-133, 2017.
- [14] 윤여준, “美 대선 결과와 무관 보호무역주의 심화 중국 이어 한국도 통상압력 주요 타깃 가능성,” Chindia Plus, 통권119호, pp.12-13, 2016.
- [15] 권영민, “NAFTA 이후 북미 자동차산업의 생산 전환에 대한 분석,” 국제통상연구, 제15권, 제2호, pp.29-67, 2010.
- [16] 강영진, “한·캐나다 FTA 발효에 따른 활용방안,” 함께하는 FTA, 통권34호, pp.12-13, 2015.
- [17] 박정준, “캐나다 통상전략과 FTA 활용법 : ‘북미’라고 미국처럼 여기다간 필패,” 함께하는 FTA, 통권35호, pp.12-13, 2015.
- [18] 박종석, “중남미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6권, 제2호, pp.171-185, 2010.
- [19] 박종석, 이길남, “한·중남미지역간의 FTA체결 이후 교역환경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

30권, 제4호, pp.193-212, 2015.

[20] 오성주, “중남미 경제 환경 분석과 한-콜롬비아 FTA 시사점,” FTA 무역리포트, 제3권, pp.1-3, 2016.

[21] 윤준모, “한국 AEO 상호인정협정의 원활화 방안에 관한연구 : 중남미국가들과의 체결을 중심으로,” 무역연구, 제12권, 제4호, pp.647-666, 2016.

[22] 문남권, 이주영, “멕시코의 자유무역과 환경 상관관계 고찰,” 중남미연구, 제35권, 제3호, pp.87-112, 2016.

[23] 최기영, “FTA 체결에 의한 중남미 자동차 수출전망과 대응 방안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3호, pp.139-158, 2012.

[24] 손태우, “중동 아랍시장 진입시 고려할 법적 사항에 관한 연구,” 韓國中東學會論叢, 제33권, 제3호, pp.243-266, 2013.

[25] 이학노, “석유개발 교섭력 결정 단계 및 중동지역 교섭력 강화 방안 연구,” 무역연구, 제6권, 제4호, pp.515-535, 2010.

[26] 정원호, “세계 농산물 무역의 주요 지역으로 부상하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5권, 제5호, pp.129-153, 2016.

[27] 서병민, “중동 의약품시장 통상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 : UAE 시장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6권, 제2호, pp.297-318, 2014.

[28] 한국무역공사, “인도·아프리카·중국 시장 정보,” 무역보험, 통권188호, pp.34-39, 2014.

[29] 김용태 외,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 현황과 한국의 진출 전략,”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5. [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

[30] 백다희, “아프리카시장에서의 우리나라 플랜트 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출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경영연구, 제5호, pp.87-111, 2014.

[31] 왕매령, 최창환, “아프리카 ODA·FDI 수출의 경제적 효과분석,” 무역연구, 제12권, 제2호, pp.295-307, 2016.

[32] 이용제, “뜨거운 적도(赤道)에 수출한 빨간 무경

소주 : 하이트진로의 아프리카 진출기,” EM inside, pp.1-7, 2016.

[33] 최정일, “글로벌 주식시장의 동조화 현상과 상관관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pp.699-707, 2016.

[34] 최정일, “동아시아 주식시장의 상관관계와 변동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5호, pp.165-173, 2017.

### 저 자 소 개

#### 최 수 호(Soo-Ho Choi)

정회원



- 2011년 2월 : 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이학사)
- 2016년 2월 :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부(경영학석사)
- 2016년 3월 :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부(경영학박사과정)
- 2014년 3월 ~ 현재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조교
- <관심분야> : SCM, GVC, 물류, 서비스경영

#### 최 정 일(Jeong-Il Choi)

정회원



- 1983년 2월 : 서강대학교 수학과(이학사)
- 1997년 2월 :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부(경영학석사)
- 2005년 2월 : 명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부(경영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성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재무관리, 투자론, GVC